

중한 번역에서 문화소의 부등성에 따른 번역 전략

강 수 정
(한국외대)

1. 서론

번역학은 기본적으로 “번역텍스트의 생산과 번역현상에 관해 기술하며 이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다루는 학문 (Bassnett 2002:21)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번역학은 ‘단어 대 단어’와 ‘의미 대 의미’의 번역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제는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전환할 때, 단어와 문장의 표층적인 차원을 넘어 언어적 표현을 둘러싼 의미구조와 그 사회적 맥락까지 아우르는 일련의 행위 과정이라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는 번역의 연구가 해석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논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는 기존의 언어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강수정 2009:7-8). 특히 언어를 말해진 것과 의미된 것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는 과정이라는 해석학적 견해에서 보면, 문화는 특정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만의 독특한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는 그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사고와 가치의 표현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원어의 언어를 역어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번역자의 가치기준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언어란 한 문화체계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해석학은 문화번역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해석학적 입장이 아니더라도 많은 언어학자들은 어휘를 넘어선, 문화에 입각한 번역의 어려움과 한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캐포드(Catford)의 경우 번역의 등기는 단순한 언어학적 기준 보다는 기능, 상황, 문화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적인 특성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으나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문화적 관련성이 있는지는 어쩔 수 없이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번역가능성의 한계를 언급했다(정연일 2006:82 재인용). 나이다(E.A. Nida)는 번역자들이 언어적 등가성을 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어려움을 5가지 범주¹⁾로 제시하며 구분하여 이에 유의해서 번역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번역이 어휘의 의미적인 차원을 넘어서 언어와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양식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좋은 번역이 만들어지며,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번역이 오히려 양자 간의 의사소통을 부담스럽게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게 한다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번역과 문화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문화라는 개념의 광범위함과 개별 번역에 적용 시 발생하는 번역자의 개인적 편차를 이유로 그 관계의 정당성을 선언적으로 인정해 버리는 것이다. 이에 김효중(2005:520)은 궁극적으로 번역이 어려운 이유를 문화의 적용 때문이라 언급하며 이를 아래의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텍스트 외적 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

둘째, 동일한 개념이라도 1:1의 정확한 대응관계에 있지 않고 문화권에 따라 의미한 것이 갖는 기능이 다를 뿐 아니라 같은 현상이나 개념에 대한 표현 방법이 다르다.

셋째, 언어와 개념의 관계보다는 실재와 문화화 된 개념의 관계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와 번역에 대한 논의에서 문화적용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는 번역

1) 생태학적, 물질문화, 사회문화, 종교문화, 언어문화로 구분하였다.(자세한 내용은 한국 문학번역원, 『문학번역의 이해』가운데 손지봉, 「번역과 문화」, 45-52 참조.)

학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대상이 바로 번역과 문화의 상호작용의 구체성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역설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화적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여 번역과 문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것이며, 번역방법의 타당성은 어떻게 밝힐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 과제로 한다.

2. 문화소와 문화적 부등성

등가를 목적으로 하는 번역의 과정에서 기계적 번역을 넘어선 문화번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텍스트에서 문화적 요소를 어떻게, 그것도 타당한 방법으로 구분해내느냐가 중요하다. 문화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번역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많은 논의들이 동의는 하고 있으나, 정작 언어 속에서 문화적 요소를 찾는 방법과 기준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레더러(Lederer)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번역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휘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해당 어휘가 지시하는 대상이나 관습이 역어 문화에 존재하지 않아서 해당 독자들을 이해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향 2004:13-32 재인용). 이는 결국 번역사가 지니는 “지식의 부족이 결과적으로 단 어치환적 번역으로 가게끔 한다 (이향 2004:19 재인용)는 것이다.

문제는 번역자 개인의 문화적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문화적 번역이 가능케 하는 구조적 요소를 찾는 것으로, 이은숙(2009:41-52)은 “번역활동이 그 자체로서 문화매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문화고유의 어휘’, ‘문화비유적 표현’, ‘문화적 기준에 따른 번역’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지만, 이 역시 개인적 교육과 학습의 차원이라, 문화와 언어의 구조적 상관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면에서, 김효중(2005:523)에 의해 소개된 문화번역이론은 문화의 중개자로서의 번역자를 규정하며, 번역자가 문화개념의 체계화를 통해 그 체계에 맞는 번역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즉, 문화적 차이와 그 차이 때문에 생긴 인식, 해석, 행위방법, 세계관 등의 차이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한다고 보는데, 그 차이는 문화적 특성을 가진 어휘적 요소인 ‘문화소’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된다.

‘문화소’를 처음으로 규정한 한센(D. Hansen)에 따르면 ‘문화소’는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이해와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유발하는 어느 한 언어권의 모든 문화적, 사회·경제적 소여성을 일컬으며, 구체적으로는 원어문화권에 나타나나 역어문화권에는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다르게 정의된 비언어적 현상, 제도 등이 이에 속한다(김효중 2004:37 재인용). 즉, 번역과정에서 언어적 차원을 넘어서는 문화를 해석하는 것이 번역자 개인지식의 습득 차원을 넘어서 해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문화체계적 요소를 파악하고 그 요소들을 정형화함으로써, 번역자들의 대응을 좀 더 보편화, 일반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원어 언어권에서 생성된 문화적 요소의 축적물이 역어권에도 공통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문화소는 서로 같지 않은 부등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스톨제(R. Stolze)는 원어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어서 누구나 다 알지만, 역어 문화권에서는 생소한 요소, 원어 문화권에서는 어떤 특정한 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키는데 역어문화권에서는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거나, 반대로 원어 문화권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되지만 역어 문화권에서는 특정한 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키는 텍스트적 요소를 ‘문화소’라고 정의한다. 그에게서 텍스트는 문화의 산물이므로, 문화는 텍스트에 표현되어 있고 텍스트는 문화의 구체적 사실인 것이다. 문제는 텍스트에 표현되거나 함축된 문화요인을 인지해야 하는 것인데 그는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화소의 부등성을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김효중 2004:39 재인용).

- 1) 실제적 부등성: 역어 문화권에 존재하지 않는 원어 문화권의 문화소
- 2) 형식적 부등성: 역어 문화권에 문화소로서 존재하지만 다른 언어적 형태를 지닌 원어 문화권의 문화소²⁾
- 3) 의미적 부등성: 역어에서 원어의 뜻으로부터 이탈하거나 원하지 않는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어휘의 문화특유의 함축성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원어와 역어간의 문화적 차이에 기반 하는 요소를 ‘문화소’라 인식하고 이 ‘문화소’에 대한 규정과 판단이 중한 간 번역행위의 핵

2) 역어문화권에 알려져 있으나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고유명사

심적 요소라고 본다. 특히 양 언어 간 문화적 불일치에서 오는 문화소의 부등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 번역 전략이 제시된다면 중한 번역을 언어적 차원에서 문화를 포괄하는 커뮤니케이션 차원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 사회의 체계로서의 문화³⁾와 텍스트에 표현된 문화의 구체적 표현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번역자는 이런 상호작용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번역자들은 기존의 언어학적 번역개념과는 전혀 다른 문화의 중개자로서의 번역자의 역할을 각인하게 될 것이다.

3. 문화소 번역 전략

나이더(1964) 이래로 언어학자들에게 좋은 번역은 단어와 의미의 등가구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문화론적 전통(Cultural Study)에 기반한 언어학자들은 기계적 등가에 기반한 언어학적 번역이론이 그 연구의 대상을 단어에서 텍스트로 옮겼을 뿐, 그 이상 확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언어 차원을 뛰어넘어 번역과 문화 간의 상호 작용, 즉 문화가 번역에 영향을 주고 제약하는 양태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즉, 연구의 초점을 텍스트로서의 번역에서 문화와 정치행위로서의 번역으로 옮긴 것으로, 스넬 혼비(Mary Snell Hornby)는 이를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라 칭하였다(정연일 2006:178). 이들은 특히 (1)번역자와 후원자들의 역학관계, (2)번역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학사조(poetics) (3) 이들의 이데올로기적 편향 등 번역자의 선택에 따라 텍스트에 포함된 문화적 함의(Cultural implication)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함으로써 번역을 언어학적 문제에서 이데올로기적 문화 현상으로 확장시킨바 있다.

문제는 번역자 개인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경험을 어떻게 일관된 방법으

3) 하인릭스(J. Heinrichs)는 문화를 하위체계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의 구조화된 체계로 정의하고 이를 다시 선형적으로 분류된 경제체계, 정치체계, 커뮤니케이션과 언어를 포함하는 문화체계, 세계관적 종교적 정체성 체계로 구분했다. 이 네 가지 하위체계는 다시 그 하위체계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에 표현된 문화적 요인은 예외 없이 체계화될 수 있다(김효중 2005:524 재인용).

로 원어의 문화적 함의를 역어에서 드러나게 할 것인가에 있다. 베누티(Venuti 1995:19-20)는 원천문화와 그 이국적 문화요소에 대한 처리를 번역자의 번역물에 대한 ‘불가시성(invisibility)’에 기반하여 번역할 텍스트의 선정과 적용할 번역방법의 선택까지 포함하는 두 가지의 번역전략, 즉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을 소개한다. 베누티는 특히 영미의 번역문화에서 자국화(domestication)가 지배적이라고 보았는데, 자국화는 영미권 중심적인 패권의 영향으로 이국텍스트를 의도적으로 축소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국화 번역을 택한 번역자는 외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고 유창한 ‘불가시성’의 번역을 한다. 반면에 이국화(foreignization)는 이국 텍스트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받아들여지게끔 목표 언어의 문화적 가치에 압력을 가해 자민족 이탈을 유도하여 독자를 이국으로 보내는 것이다(베누티 1997:242). 그는 가독성을 담보한 자국화 번역이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행위라 여기고, 번역자가 이국화 번역을 통해 독자의 경험을 확장시킬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번역에서도 번역자들은 양국의 상이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번역물에 대해 가급적 원문의 분위기를 충실히 전달하여 독자들에게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한국어 문화에 동화시켜 중국어 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줄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고민이 대개 번역자 개인의 경험과 기대에 의지하게 되고, 중국어 문화적 함의에 대한 ‘일관성 없는 번역’으로 이어져 그 번역행위는 문화론자들의 이데올로기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본고에서는 스톨제의 분류에 따라 문화소별 부등성을 객관적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비판을 극복함과 동시에 자국화와 이국화의 번역전략을 활용하여 언어에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의 해석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 보고자한다.

4. 문화소 번역전략 검토

“번역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실제 번역에서의 어려움을 분석하여 그 어려움이 어디서 기인하는가를 밝혀줌으로써 번역가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한국문학번역원 2007:23)인 바, 본고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어 번역물에 나타나는 문화소의 부등성을 스톨제가 제시한 바와 같이 실제적 부등성, 형식적 부등성, 의미적 부등성의 세 종류로 분류하여 각기 상황에 적합한 번역전략을 검토하고자 한다. 부등성의 의미가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라 구체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문화소의 개념을 번역자들에게 확인시키며, 이의 이론화를 시도한다는 탐색적 의미에 주목하고자 하며, 여기에 베누티의 자국화, 이국화 번역전략을 결합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문화번역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문화소의 부등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문화소의 대상이 되는 실체가 양 언어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표의 모델로 정리하여 설명함으로써 문화소의 작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표1〉 스톨제의 문화소의 부등성 중한번역 적용 모델

부등성	중국어	공통 대상 및 실체	한국어
실제적 부등성	존재하는 실체	없음	존재하지 않음
형식적 부등성	A 단어로 존재	존재하는 동일실체	B 단어로 존재
의미적 부등성	A 의미로 존재	존재하는 동일실체	B 의미로 존재

4.1. 실제적 부등성의 문화소

실제적 부등성은 원어 문화권에는 존재하지만 역어 문화권에 존재하지 않는 문화소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번역이 난해하거나 심지어 불가역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중 간 번역에도 역시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제적 부등성이 다수 존재하는데, 일상생활과 관련된 후통(胡同), 사합원(四合院), 쑹즈(粽子)에서 예술과 관련된 경극(京劇), 월극(越劇), 역사와 관련된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장정(長征), 정치제도와 관련된 삼개대표론(三个代表論), 소강사회(小康社會) 등등 하나 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상기한 실제적 부등성을 갖는 고유명사들은 한국어 문화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화소이다. 그러나 양국 간 교류에 따라 이미 한국 내에 어느 정도 그 개념이 알려져 있거나,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어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 한국독자들이 그 뜻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문화소이다. 이러한 실제

적 부등성에 대해 스톨제는 “텍스트 전체를 원문 텍스트에 상응하는 유사한 텍스트로 번역함으로써 보상될 수 있다. (김효중 2004:39 재인용)고 설명한다. 따라서 중한 간 번역에서 실제적 부등성의 적용은, 한자어로 그대로 직역하고 문장 내에 한자를 병기함과 동시에 주석을 달거나 간단한 부연설명을 추가하는 이국화의 번역방법이 유용하다. 아래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례1> 고유명사의 이국화(한자어 사용)와 부연설명

원문)這番說辭的水平堪與蘇秦、張儀之流媲美，所以《拷紅》一折，也是《西廂記》最精彩的片段之一。

번역1) 「고홍(拷紅)」은 소진(蘇秦), 장의(張儀)에 견줄만한 『서상기(西廂記)』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번역2) 흥남이 마님을 설득하는 부분인 「고홍(拷紅)」은 유명한 달변가 소진(蘇秦)과 장의(張儀)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이 작품의 백미로, 『서상기』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대목으로 꼽힌다.

이 문장은 중국 작가 이중톈의 『중국의 남자와 여자(中國的男人和女人)』에 나오는 부분으로 실제적 부등성을 가진 다양한 문화소가 한 문장 안에 들어 있는 대표적인 문장이다. 이를 직역하면 번역1)과 같이 된다. 겉으로는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번역인 듯하지만 ‘고홍, 소진, 장의, 서상기’ 라는 실제적 부등성의 문화소가 열거된 이 문장을 번역1)과 같이 직역할 경우 한국독자들은 이 문장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거나 한국독자에게는 무의미한 명사의 나열로 인식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우선 한자어 번역과 한자 병기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되, 만일 대상 독자가 중국문화에 문외한일 경우, 문장 안에서 짧은 부연설명을 하거나 주석을 추가해 이해를 돕는 방법이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단, ‘소진’과 ‘장의’는 이것이 인명인 관계로 한자어나 중국어 음역 가운데 번역자가 전문(全文)의 번역전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국화+부연설명’이나 ‘이국화+주석’의 번역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장의 경우 물론 주석을 달아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본 서적이 전문서적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볍게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수필체의 작품인 관계로 번역2)와 같이 문장 안에서 번역자가 짧게 부연설명을 삽입함으로써 충분히 의미전달이 가

능하기 때문에 주석을 달기 보다는 문장 내에 부연설명을 추가하여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

<사례2> 고유명사의 이국화(음역)와 부연설명

원문) 爲搶占端午商機，眼下五花八門的粽子已急急上市。

번역1) 단오를 맞아 최근 다양한 쫄즈(粽子)가 출시되고 있다.

번역2) 단오를 맞아 최근 다양한 종자(粽子)가 출시되고 있다.

이 문장은 강남시보(江南時報) 2010년 5월25일자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쫄즈(粽子)는 굴원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는 기록을 갖는 음식으로, 중국인들이 단오절에 먹는 음식이다. 이 역시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화소인데 이 경우 번역2)와 같이 한자어로 표기할 경우, 뒤에 한자를 병기한다 하여도 한국독자들이 한자를 보고 그 의미를 추측하기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한국어에서 음이 같은 ‘종자(種子)’와 헷갈리게 되어 의미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소의 경우, 한자어의 직역보다는 중국어의 음역을 사용해 이국화한 후 주석이나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번역방법이라 판단된다. 다시 말해 한자어를 사용한 이국화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한자어 사용이 한국어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음역을 사용한 이국화 번역전략이 보다 효과적이다.

4.2. 형식적 부등성의 문화소

형식적 부등성은 역어 문화권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른 언어적 형태를 지닌 원어 문화권의 문화소를 말하는데 스톨제는 이에 대해 역어 문화권에 알려져 있지만 다른 형태의 언어로 표현되는 고유명사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김효중 2004:39 재인용). 실제로 한-중 간에도 형식적 부등성을 보이는 고유명사의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고궁-자금성’, ‘무측천-측천무후’, ‘장백산-백두산’ 등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번역에서의 사례를 살펴보고도 록 하겠다. 문장은 역시 상술한 이중텐의 책에서 발췌하였다.

<사례3> 고유명사의 자국화1

원문) 甚至如唐高宗這樣的皇帝，干脆把朝政也交給老婆武則天去處理。

번역1) 심지어 당 고종과 같은 황제도 아예 조정을 아내인 무측천에게 넘겨 버렸다.

번역2) 심지어 당 고종과 같은 황제도 아예 조정을 아내인 측천무후에게 넘겨 버렸다.

‘형식적 부등성’에 해당하는 문화소인 ‘무측천’의 부분을 보면, 중국에서 ‘무측천(武則天)’으로 불리는 이 여인을 한국인들은 ‘측천무후’로 알고 있다. 측천무후는 그 시대의 역사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익히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번역자의 부가설명은 구태여 필요치 않지만, 만일 중국어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번역1)과 같이 ‘무측천’으로 표기할 경우,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낯선 인물로 오독될 가능성이 있다. 원작자의 의도와 문체를 해하지 말고 그대로 살려내야 한다고 함은 결코 일대일 대응식의 직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형식적 부등성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역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고유명사가 원어문화권의 문화를 왜곡하지 않는 한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번역2)와 같이 자국화 하여 번역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사례4> 고유명사의 자국화2

원문) 這個周末我不是去故宮，就是去長城。

번역) 이번 주말에 자금성이나 만리장성에 갈 거야.

중국어 학습을 위한 문법교재에 나오는 이 문장에는 2개의 형식적 부등성의 문화소가 등장한다. 중국을 잘 알거나 중국어를 배운 사람들은 ‘고궁’이나 ‘장성’이라는 표현에 익숙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에게 고궁은 ‘자금성’으로, 장성은 ‘만리장성’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의미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으며 원어문화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자금성’과 ‘만리장성’으로 자국화 된 번역을 통해 독자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4.3. 의미적 부등성의 문화소

‘역어에서 원어의 뜻으로부터 이탈하거나 원하지 않는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어휘의 문화특유의 함축성’으로 정의되는 의미적 부등성은 언어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의미에 있어 큰 차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번역에 있어 가장 유의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의미적 부등성을 가진 문화소의 오역은 의사소통 장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는 종종 번역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김효중(2004:39)은 “특히 문학적, 철학적, 사상적 텍스트의 형식과 그 형식에 의해서 전달되는 내용을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고 강조한다. 그는 또한 “이러한 텍스트의 언어표현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즉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특정의 문화와 관련되는 개념, 관습, 사고방식, 감정 등과 연관되어 있다. 고 말한다. 사실 부등성 가운데 가장 까다롭고 감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의미적 부등성으로, 이는 어휘, 성어, 문장, 텍스트를 막론하고 곳곳에 산재해 번역을 어렵게 하는데 각각의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례5> 의미적 부등성의 자국화 번역1

원문) 被戴綠帽子丈夫棒打妻子致其死亡。

번역1) 녹색모자를 쓰게 된 남편이 아내를 몽둥이로 때려 숨지게 했다.

번역2) 외도한 아내, 남편에게 몽둥이로 맞아 사망.

원문은 중국의 온라인 신문인 북방신문망(北方新聞網)의 2010년 3월17일자 기사의 제목이다. ‘녹색모자를 쓰다’는 표현은 중국어에서 ‘아내가 외도를 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남자가 녹색모자를 쓴다는 것은 그 남자의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라 중국에서는 매우 수치스럽고 부정적인 의미인 것이다. 이를 번역1)과 같이 번역을 한다면 ‘녹색모자를 쓰게 된 남편’에 대해 한국어 독자들은 문화적 의미의 차이에 기인한 이 문장에서 원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의미적 부등성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하여 번역자는 번역2)와 같이 자국화 된 번역을 통해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해야 한다.

<사례6> 의미적 부등성의 자국화 번역2

원문) 初生牛犢不怕虎。

번역1)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다.

번역2)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밀고 나간다.

중국어 속담 가운데 ‘初生牛犢不怕虎’는 직역하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다’이다. 따라서 이 속담을 보면 한국인들은 바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다’는 한국 속담을 떠올리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의 번역은 될지라도 한국과 중국에서 이 속담의 함의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중국어에서 이 속담은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이 패기가 있어 겁 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밀고 나간다’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 한국어 속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다’는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⁴⁾ 따라서 이러한 경우 문화적 함축성을 등한시 하고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심각한 오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번역2)에서와 같이 자국화 번역 전략을 택해 올바른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4.4. 한자사용 부등성의 문화소

한중 간 번역에는 다른 언어 간 번역에서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로 동일한 한자가 갖는 서로 다른 의미로 인해 발생하는 부등성이 그것이다.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한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 간 번역에서 번역자, 혹은 학습자들은 한자를 그대로 자국어로 옮겨오으로써 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동일한 한자의 형태가 양 언어권에 모두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는 전혀 다른 경우로, 다양한 품사의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중 간 번역의 특수한 부분이므로 별도로 논의해 본다. 수많은 사례

4) 한국에서 출판된 중한사전에서는 이 속담의 의미를 ①‘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다’와 ②‘젊은 사람들은 용감하고 대담하다’의 두 가지 의미로 모두 해석하고 있으나 실제 중국에서는 ②의 의미로 사용되며, 아주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는 있으나, ①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들이 있겠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우선 ‘客气’는 중국어에서 ‘예의 바른 표현이나 겸양’의 의미를 갖지만 같은 한자로 표현되는 한국의 ‘객기’는 ‘객쩍게 부리는 험기’를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이다. 중국어에서 ‘아내, 부인’의 의미로 사용되는 ‘老婆’는 한국어에서 ‘노파, 늙은 여자’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듯 같은 한자의 서로 다른 쓰임으로 인한 오해의 여지는 한중 간 언어에 산재해있다. ‘汽車’는 중국어에서는 ‘자동차’이지만 한국에서는 ‘기차, 열차’의 의미이고, 중국어에서 ‘飯店’은 ‘호텔’의 의미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중국음식점’의 의미로 사용되며 중국어의 ‘高校’는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기관을 말하지만 한국어에서는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번역은 반드시 자국어화된 번역을 통해 정확한 뜻을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5. 결론

스톨제의 연구는 검증된 데이터가 누적되어 그 타당성이 광범위하게 검증된 이론적 연구라고는 보기 힘든, 일종의 탐색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 부등성 적용에서 언어적 차원을 세분화하여 정교하게 구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번역을 어렵게 하는 문화적 요소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기 적합한 번역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문화적인 번역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탐색의 일환으로 중한 번역을 예로, 스톨제가 말한 문화소의 부등성 유형에 근거하여 문화소를 분류하고 여기에 베누티의 이국화와 자국어 번역전략을 적용, 검토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표2〉 중한 문화소 번역전략의 적용

부등성	내용	어휘형태	번역전략
실제적 부등성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중국 문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중국 단어	고유명사	이국화(한자어) 이국화(음역)
형식적 부등성	중한 간 동일한 문화실체이나 서로 다른 형태 사용	고유명사	자국어화

의미적 부등성	중한 간 동일한 문화실체이나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	다양한 품사 문장	자국화
한자사용 부등성	동일한 한자권으로 인해 발생한 동일한 한자어의 다른 의미	다양한 품사	자국화

각 부등성은 문화적인 실체 여부를 떠나서, 특정한 어휘 형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국화 혹은 자국화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사실, 구미의 이론으로 중한 간 번역 현상을 평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⁵⁾ 이론 자체가 주관적 경험의 서술이 아닌 이상, 언어와 문화권을 넘어서 일정하게 타당한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전제 하에서 스톨제가 제시한 문화소 부등성의 개념을 중한 간 번역에 적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중한 간 언어에 나타나는 문화적 속성의 차이를 부등성으로 설명해내고, 그 부등성에 따라 번역전략을 수립하는 것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중국어가 같은 한자권에 속해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한자사용의 부등성을 발견한 것 역시 향후 한중 간 번역에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수정 (2009) 「중한 문학번역에서 등가의 적용」, 『번역학연구』 10(3): 7-29.
 김효중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푸른사상사.
 김효중 (2005) 「문학작품 번역에서 문화 적용의 문제」, 『어문학』 87: 519-536.
 이은숙 (2009) 『번역의 이해』, 서울:도서출판 동인.
 이향 외 옮김 (2004) 『통번역과 등가』, 서울:한국문화사. (Fortunato Israël (ed)

5) 번역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요소에 대해서는 중국학자들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천둥청(陳東成)은 문화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것을 버리고 같은 것만 추구하는(舍異求同)’ 번역이 아닌 ‘같은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은 남기는(求同存異)’ 번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陳東成 1993:101)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관적 논의에서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다.

- (2002) *Identité, altérité, équivalence?: La traduction comme relation*, Paris & Caen: Lettres Modernes Minard.)
- 전기정 (2008) 「문학번역에서의 문화소와 번역 전략」, 『중국어문학논집』 51: 275-299.
- 정연일 남원준 옮김 (2006) 『번역학 입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Jeremy Munday (2000)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한국문학번역원 (2007) 『문학 번역의 이해』, 서울: 북스토리.
- Bassnett, S. (2002)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Nida, E.A. (1964)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J.Brill.
- Venuti, L.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enuti, L. (1997)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242
- 陳東成 (1993) 試論翻譯中處理文化差異的“求同存異”原則, 『深圳大學學報』 10(1): 101-106.
- 易中天 (1999) 『中國的男人和女人』,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Abstract]

Application of Cultural Elements in Chinese-Korean Translation

Kang, SuJ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ny scholars agree that the translation without considering cultures has a hampering effect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is a bar to achieving its goals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Many studies simply declare the need for cultural translation, claiming to enhance a personal cultural power, but there are few validated studies about how the mutual relations specifically interact.

This paper is to present some basic idea of the culture translation theory, cultural factors in the language are identified 'Kulturem(cultural element)' in the theory. In the culture translation theory, cultural differences in both languages are called 'cultural asymmetry', divided into real asymmetry, formal asymmetry and semantic asymmetry. In addition, it presents two translation strategies for each asymmetry, domestication and foreignization proposed by Venuti. As a result, it is verified that the concepts of 'Kulturem' and 'asymmetry' can be applied in Chinese-Korean translation, also confirmed asymmetry caused by the fact that Korea and China belong to the same cultural area of Chinese character.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some basic idea that the application of culture in the translation is not the problems on personal levels but the problems caused by cultural factors and also propose the strategies how to translate cultural factors in Chinese-Korean translation.

▶ Key Words: Chinese-Korean translation, asymmetry of cultural elements, cultural translation, translation strategy, foreignization, domestication

강 수 정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강사

xiaojiang@hanmail.net

관심분야: 중한번역, 문화번역, 번역이론

논문투고일: 2010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0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30일